

보도해명자료

(‘13.3.2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중국산 합판’ 둘러싼 韓美의 미묘한 공조
(‘13.3.22, 동아일보 B03면)

1. 기사내용

- 韓美, 1개월 시간차 두고 中합판 덤핑 예비판정은 韓美 양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‘찰떡궁합’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중국과 통상마찰 소지가 없지는 않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무역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‘중국산 합판의 반덤핑조사’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문과 한국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반덤핑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- ‘韓美의 미묘한 공조’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참고로 미국 이외 EU도 중국산 합판에 대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신동준 팀장(02-2110-5561)
덤핑조사팀 방순자 팀장(02-2110-5571)